

예배부흥! 새벽예배 20명, 금요축복기도회 30명, 주일예배 100명
Let's Pray for Church Growth!
 (Dawn Prayer service 20 people, Friday service 30 people, Sunday service 100 people)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매 주일 10시30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We Hold an Intercession Meeting at 10:30 am Every Lord's Day in the Sanctuary.

담임목사 라디오 설교 AM1590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썸머타임 시작 Daylight Saving Time Begin
 ▶ 3월 8일(주일)부터 be start on 8th March ◀

- 새가족 환영 Welcome New Comers!**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가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A Warm welcome becomes a big strength to them.
- 썸머타임시작 Daylight Saving Time Began**
- 3월 수요제직학교 성료 March Wed. Stewardship Seminar Successfully Finished**
- 애찬 Meal**
 이번 주 애찬은 한수잔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Today's meal prepared by Sister. Han's Family

[공지 Notice]

- 교회 홈페이지 개설 Church Internet Homepage Open**
 ▶ www.fullgospelcentralchurch.org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 ▶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 ▶ 흥필교 권사님(그로스 포인트 양로병원)
- ▶ 강경희 집사님 시모님 건강회복
- ▶ 토마스 게일 집사님(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출타중인 성도님들을 위하여(유성애 자매, 한수잔 성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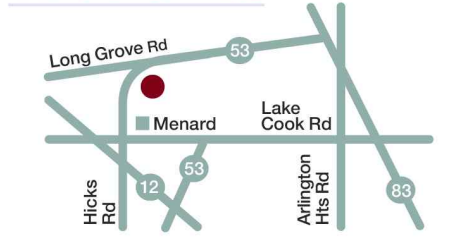
SERVANTS 섬기는 사람들

순복음세계선교회총재 Full Gospel World Mission Foundation	조용기 목사 Rev. Y. G. Cho
순복음세계선교회이사장 Full Gospel World Mission Foundation	이영훈 목사 Rev. Y. H. LEE
담임 Senior Pastor	황선욱 목사 Rev. S. W. Hwang
부교역자 Associate Pastor	류성언 목사 Rev. S. U. Yoo
	윤선희 권도사 Pastor S. H. Yoon
교회학교 Youth Worker	최제이슨 형제 Brother Jason Choe
동시통역 English Interpretation	문수지 자매 Sister S. J. Moon
지휘 Conductor	박명수 집사 Deacon M. S. Park
반주 Piano	유성애 자매 Sister S. A. Yoo

SERVICE INFO 예배안내 및 정기모임

새벽예배(월~금) Morning Prayer Service	5:30am
주일예배 1부 Sunday Service, 1st	9:30am
주일예배 2부(영어 동시 통역) Sunday Service, 2nd(English Interpretation)	10:40am
금요예배 Friday Service	8:20pm
청년부 Young Adult (1st Tue. of each month)	7:30pm
교회학교 Sunday School	11:00am

DIRECTION 찾아오시는 길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We gain strength when we meet!

20949 IL Rte 53, Lake Zurich, IL 60047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복음중앙교회 주일예배”

Making God's History on F.G.C.C. Sunday Service

※ 주일1부예배 오전 9시30분 / 2부예배 오전 10시45분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설교: 황선욱 목사
Rev. Sun Wook Hwang

찬양과 경배 <i>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i>	다함께 <i>Altogether</i>
사도신경 <i>The Apostles' Creed</i>	다함께 <i>Altogether</i>
찬양과 경배 <i>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i>	다함께 <i>Altogether</i>
대표기도 <i>Prayer</i>	1부: 황선욱 목사 / 2부: 모춘식 안수집사 Rev. S.W. Hwang / Sir. Deacon. Mike Mo	
찬양 <i>Anthem</i>	면류관 드리자	샤론 성가대 <i>Sharon Choir</i>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호세아 Hosea 3:1-5	다함께 <i>Altogether</i>
설교 <i>Sermon</i>	이렇게 사랑하라! Love Like This!	설교자 <i>Preacher</i>
헌금기도 <i>Offering Prayer</i>	1부: 황선욱 목사 / 2부: 박명수 집사 Rev. S.W. Hwang / Deacon. M.S. Park	
헌금송 <i>Offering Praise</i>		샤론 성가대 <i>Sharon Choir</i>
광고 <i>Announcement</i>	1부: 찬송가 Hymn 411 / 2부: 샤론 성가대	샤론 성가대 <i>Sharon Choir</i>
헌금축복기도 <i>Benediction for Offering</i>		설교자 <i>Preacher</i>
*주기도송 <i>*The Lord's Prayer</i>		다함께 <i>Altogether</i>
*축도 <i>*Benediction</i>		설교자 <i>Preacher</i>

* 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

새 찬양 New Song



주님은 나의 사랑

Don Moen 올데이전스 역

주님은 나의 사랑 - 내 삶의 의미 - 유되시 - 며

어둠 속에 - 내 소망 - 내 노래 되 - 시 - 네 -

주님이 주 - 신 기쁨 - 날이 갈수록 커 - 제 가리 - 라 -

영원 영원히 - 감사 드리 - 리 - 리 - Cont. 2nd & 3rd time Fine 4th time

1. 주님 주 - 신 것 - 다 양 수 가 없 - 네 -
2. 주의 이 - 림 을 - 영 원 히 높 이 - 며 -

우 리 를 선 택 해 - 불 러 주 - 셧 네
찬 양 의 제 사 주 - 께 드 리 - 리 라

보좌로 - 부터 - 생 명 과 강 건 - 함 -
주 계 신 - 께 에 - 나 살 기 원 하 - 니 -

어 느 곳 에 나 - 흘 러 넘 - 치 네 - D.C. Fine
주 님 님 도 록 - 날 빛 으 - 소 서 -

설교: 유성언 목사

3/13/2015 (Fri.) 8:20pm

찬양과 경배 다함께 <i>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i>	다함께 <i>Altogether</i>
사도신경 다함께 <i>The Apostles' Creed</i>	다함께 <i>Altogether</i>
찬양과 경배 다함께 <i>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i>	다함께 <i>Altogether</i>
대표기도 설교자 <i>Prayer</i>	설교자 <i>Preacher</i>
성경봉독 다함께 <i>Scripture Reading</i>	다함께 <i>Altogether</i>
설 교 설교자 <i>Sermon</i>	설교자 <i>preacher</i>
통성기도 다함께 <i>Prayer</i>	다함께 <i>Altogether</i>
축도 설교자 <i>Benediction</i>	설교자 <i>Preacher</i>

짧은 이야기 깊은 생각

Short Story deep in though

“값싼 은혜 VS 값비싼 은혜” - 본 회퍼 Dietrich Bonhoeffer



“값싼 은혜”는 어떤 상품을 실제 값보다 싸게 팔아 버리듯이 입술로 말하는 위안, 용서, 싸게 팔아 버리듯이 주는 성례전을 말한다. 은혜는 마치 퍼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저장 창고처럼 여겨 그 창에서 너무도 험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퍼내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매겨진 값도 없고 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이 다 공짜라는 기분이다. 그래서 무한히 험하게 퍼주듯이 남발하는 것이다. 본회퍼에 의하면, 값싼 은혜는 교리에 의한 은혜, 원리에 의한 은혜,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이다.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되는 죄의 용서요 그리스도교적인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를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이다.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은혜를 이미 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들의 죄를 값 싸게 덮어놓고 있는 것뿐이다.



황선욱 목사(Head Pastor, Rev. Sun Wook Hwang)

현)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한세대학교 B.A. / M.Div. /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과정 중
KOSTA/ GKYM/ Youth Specialties KOREA Core
전) 오아후순복음교회 담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프뉴마 청년선교회 담당

다음주(3/15) 예배위원

예배	대표기도	헌금기도	애찬	안내	교회차량
1부	황선욱 목사	황선욱 목사	강효흔 집사	유연봉 장로	정수연 집사
2부	유연봉 장로	김선미 집사		백사남 장로	



살려고 하면 죽고 죽겠다고 하면 산다
(To Live IS to Die, To Die IS to Live)

고후(2Co.) 4:10~11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면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의 풀무불을 각오하고 왕의 우상숭배 명령을 거부했을 때, 또 다니엘이 죽음의 사자 굴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그들은 죽음 대신 오히려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1. 왕의 우상숭배 명령을 거역한 세 청년

(Three young men who rejected idol worship that king ordered)

-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운 후 모든 관원들에게 '금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림.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왕의 진노를 사게 되었음 (단 3:13~18)
- 2) 세 청년은 죽음의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으나, 그 죽음의 불구덩이에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지켜 주셨음 (단 3:22~30)

2.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공경한 다니엘 (Daniel who revered God, risking his life)

- 1) 다리오 왕이 '삼십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는 금령을 반포함.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음 (단 6:7~10)
- 2)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 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음 (단 6:19~23)

3.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Jesus who died for our salvation)

- 1)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매우 고민하신 예수님 (마 26:28~39)
- 2)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 십자가 고난으로 영원한 생명샘이 되심 (막 10:45)
- 3)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야 함 (고후 4:10~11)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불 붙은 떨기나무

출(Ex.) 3:1~4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 인생의 많은 부분이 만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 떨기나무 인생 (Life like a bush)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냈고,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떨기 덩불을 보았습니다(출 3:1~2). 여기서 가시떨기는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져 메마르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외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갖 상처의 가시로 뒤덮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롬 8:6~7).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소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불 (The fire of the Holy Spirit on us)

모세가 목격한 가시떨기에 붙은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인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 들인 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출 3:2~3).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붙은 불이 절망 속에 살던 모세에게 밝혀진 희망의 불꽃이었듯,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절망, 염려, 불안을 불사르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면 다시금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가시떨기 인생이 되고 맙니다(살전 5:19).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God who calls us)

하나님께서서는 가시떨기의 불을 보려고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출 3:4). 이로써 모세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듣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에 마음을 뺏겨 주님의 음성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영적으로 둔해질 뿐만 아니라 쉽게 좌절하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